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파견기간	18.8.26 ~ 18.12,8
프로그램	정규 /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필리핀은 비자를 따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발급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로 등록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학생보험은 메리츠화재 3개월 동안 등록하여 20만원 안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공권은 아시아나 항공 약50만원으로 구매하였는데, 필리핀항공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라살대학교는 의상에 제한이 있어서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반바지보다는 길이가 긴 옷을 많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텀블러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구는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구매할 수 있어서 샤프심, 공책, 지우개 등은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필리핀은 영어는 제2국어로 그들의 모국어는 타갈로그어 입니다. 필리핀 억양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느낄만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학생들, 국민들은 K-pop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필리핀은 한국보다는 음식점, 상점의 계산 시스템이 빠르지 않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느끼기에는 물가가 저렴한 편 입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니며, 가격이 싸면 양이나 질은 그 가격 값을 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라살대학교는 마닐라에서 조금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저는 라살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제가 어학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이 공부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만족하였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필리핀의 국제공항은 나사이 공항으로 1개만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학교 버스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떠나기 전 따로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듣습니다. 하루에 8시간 수업이며 4시간은 그룹, 4시간은 1:1 수업입니다. 처음엔 맨투맨 수업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재미있고 내 실력이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수업이며, 선생님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 기숙사는 3인1실입니다. 방은 3명이서 생활하기에 좁지 않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와이파이도 되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점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침대의 크기도 조그만하여 남학생들에게는 좁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5. 교내·외 활동

- 교내에서는 스포츠페스티벌, 마닐라투어, 잉글리쉬 페스티벌 등 1달에 한번 학생들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KLP로 한국어 봉사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쳐 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시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학교 안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인이라서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적발 당할 시 경고 카드를 받게되며,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만사항이었지만, 그들만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라살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학교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 저는 필리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즐겨먹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음식은 기름지고, 짜고, 단 맛이 한 음식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식당에 한국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삼겹살 식당이 많이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무척 길고, 직원들도 느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그랩”이라는 택시 어플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항상 그랩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프니와 버스, 철도 등이 있지만 위험하여 현지인들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랩을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트라이시클을 이용하였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전 학기 중 민도르, 보라카이, 바기오 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수많은 섬들이 있지만 보라카이가 그 중 가장 유명하여 필리핀 입국 전부터 보라카이 여행을 계획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였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마음을 신중히 먹고 다른 섬들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라카이는 한국에서도 쉽게 갈 수 있으며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굳이 필리핀에서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더 아름답고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도르는 필리핀에서 처음 알게 된 섬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마닐라에서 멀지않아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기오는 고산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365일 더운 필리핀에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필리핀사람들에게도 최고의 여행지로 꼽혀 바기오 여행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사실 필리핀이 한국에서는 총기, 약물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필리핀 적응 초기에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기 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똑같이 행동하며, 상처 받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공부할 마음만 가진다면 영어를 배우기에 최고의 어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보다는 인터넷, 교통 환경이 정말 많이 좋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에 조금씩 힘든 점도 있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영어를 배운다면 잊지 못할 추억과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